

사설

100송이 연꽃으로 핀 경찰불심

100번째 경찰불자회가 창립된다. 11월 19일 경북 구미경찰서 불자회가 100번째 대한민국경찰불교회(약칭 경찰불회) 지회로 등록한다는 소식이 있다.

경찰불자회는 불자경찰들의 실행 활동과 경찰 유관 기관과 구치소 포교 등 넓은 영역을 무대로 갖는다. 20여 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에 근무하는 몇몇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연꽃 모임'이 경찰불자회의 연원이 다. 순수한 불심을 배경으로 피어난 연꽃 한 송이가 이제 전국 100곳의 경찰서에서 만개한 셈이다.

경찰회의 100번째 지회 창립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수적인 팽창이 주목된다. 2001년 4월 대한민국경찰불교회라는 연합 기구가 출범한 이래 43곳의 지회가 늘어난 것이

다. 이 탄력을 받아 경찰청 산하 지방청, 경찰서, 경찰학교 등 255곳의 기관에 빠짐없이 지회를 설립하려는 서원이 보다 구체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가 늘면서 경찰회의 내면적인 성장도 꾸준하다. 교리공부와 법회의 정례회는 기본이고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일선 포교사들은 직장직능 단체의 실행활동은 자칫 타성에 빠져들기 쉽고 말한다. 일터의 여러 연건들과 종교적 활동을 통해 이 같은 뜻이다. 경찰불자들이 역시 독특한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조직의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 다른 단체들과의 교류 등 많은 과제들을 풀어내며 '100송이의 연꽃'으로 성장한 경찰회가 자랑스러운 것이다.

불교지성의 보편적 확장

산문을 들어서면서 흔히 만나게 되는 글귀가 있다. '이 문 안으로 오는 자, 알음알이를 남기지 말지어다(此門內莫存知解)'라는 경교성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알음알이를 극도로 경계한다. 하지만 그것을, 무지를 권장하고 지식을 혐오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진의는 체화(體化)되지 않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얇은 병통이라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론과 실천'이 결도는 세상에서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가르침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불 때 '불교지성 인연대' 창립에 부치는 박수는 의례적 덕담이 아니라 고인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첫째, 종론이나 구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소한 거대담론은 관념의 유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불교적 지성의 보편적 확장에 기여해야 한다. 오늘날 전 지구화된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는 '탐진치'의 극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인 배제의 경쟁은 결국 공멸로 가는 길임을 설득하는 것, 불교 지식인이 이 시대에 유효해야 할 지적 백신이다.

셋째, 연구와 실천은 병행해야 한다. 긴 안목의 처방과 진단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의 과제에 대한 외면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당장의 약방문이 절실한 상태다. 그렇다고 그것을 기술자의 대응 방식과 같은 즉발적인 것이 아니냐고 회의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한 오늘의 약방문이기에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자 스스로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불교 지식인들이 앞장서 할 일이다.

'선교육 후득도'로 승가제도 전환

승려노후복지제도 수립·시설재원 마련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내년 6대사업 밝혀

내년에는 조계종의 승가교육체계 바꾸고 종단의 오랜 숙원이었던 승려노후복지제도를 위한 각종 제도로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1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조계종 제161회 정기중앙총회에서 중점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중점사업 및 종단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날 법장 스님이 제시한 내년도 중점사업은 △조계사 성역화 △승가교육체계 개선 △승려노후

복지시설 설치 △장단기 종단발전 종합계획 수립 △국제포교 활성화 및 국제전문인력 양성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모두 6가지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승가교육체계 개선과 승려노후복지시설 설치 문제. 법장 스님은 이날 중점연설에서 현재의 '선득도 후교육' 제도를 '선교육 후득도'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6개월~1년간의 행자교육과 4년간의

강원교육 체계에서 교육 연한을 늘리고 교육의 질도 높여겠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자교육 후 받던 사미계를 강원교육을 마친 뒤 받게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승려노후복지시설은 내년에 당장 설치하는 어려우나 이를 위한 재원과 제도는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장 스님은 "국비 등 재원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내년 한 해 동안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다. 법장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전통불

교문화산업지원센터의 건립 목적은 불교문화의 일반화 외에 중앙연수원 기능과 국제간화선센터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를 축으로 간화선과 전통불교문화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보편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단 운영 방침도 제시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 경영'과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조계종 중앙총회 개원

예산·종헌 개정 등 처리

조계종 제161회 정기중앙총회가 11월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15일간의 회기로 개원했다.

이번 정기중앙총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앙총무기관 중점감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총림학교 관리위원회 활동보고 △총림개정(기초선원 및 중앙신도회 관련) △총법 개정(승려법, 선원법, 계단법, 교육법, 신도법)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후보 추천 △법계특별전행동의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법규위원 선출 취소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한명우 기자

불교계유치원 모두 1백80여곳

본지확인, 조계종 발표보다 50여곳 많아

불교계 유치원 수가 지난 10월 29일 조계종 포교원이 발표한 132개보다 50여개나 많은 180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교원은 '불교계 유치원 현황 조사' 결과 조계종 94개, 천태종 12개, 진각종 7개, 태고종 1개 등 총 132개의 불교계 유치원이 운영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지확인결과 진각종의 경우 16개의 유치원이 추가 확인됐으며, 태고종은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유치원 수만 10곳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찰이 운영하는 유치원까지 합한다면 태고종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30여개에 달한다. 천태종도 12개보다 5개가 더 많은 17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경 기자

조계종 5기 교육위원회는 최근 새로 꾸려졌다. 교육원은 위원회별로 각각 9명씩의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교육위원장에 항적 스님(총회의원), 교재편찬위원장에 무관 스님(계단위원회 위원, 유인), 역경위원장에 지안 스님(은혜사 승가대학원 학장)을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출했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5기 교육위원회

조계종 5기 교육위원회는 최근 새로 꾸려졌다. 교육원은 위원회별로 각각 9명씩의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교육위원장에 항적 스님(총회의원), 교재편찬위원장에 무관 스님(계단위원회 위원, 유인), 역경위원장에 지안 스님(은혜사 승가대학원 학장)을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출했다.

권형진 기자

선학원 전국분원회의

선학원은 11월 6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70명의 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분원회의를 열고 재단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분원회의에서 분원장들은 내년 선학원 설립 70주년을 맞아 선학원 발전을 위한 대법회를 개최하고, 선학원 성역화 불사를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분원장들을 대상으로 선학원 발전방안 및 재단 설립 7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한명우 기자

세계불교청년포럼 05년1월 서울서

美등 19개국서 37개단체 참가

'나눔과 하나됨' 주제

세계불교청년우의회(WFBY: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는 2005년 1월 9~12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나눔과 하나됨'을 주제로 제3회 세계불교청년포럼을 개최한다.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 총 19개국에서 37개의 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포럼에는 청야오 스님(대만), 티타다모 스님(싱가포르), 상가세나 스님(인도) 등 세계 각국의 스님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지광 스님(능인선원 원장)이 강연자로 참석, 한국불교의 수행법 등을 알려주게 된다.

또 미국 청년들이 불교에 입문하는 과정을 담은 <청바지를 입은

부처(BLUE JEAN BUDDHA)>의 자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수미 런던(SUMI LONDON)이 참석, '미국 청년불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WFBY 산하단체인 '클럽 25'의 공식 출범식도 함께 열린다. 25세 이하 청소년 불자들의 모임인 '클럽 25'는 포럼 기간동안 '클럽 25' 세계대표를 선출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발대식을 가졌다.

WFBY 한국 측 준비위원장 선업 스님은 "그 동안 한국에서 전무했던 청년불자를 위한 국제 교류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불자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고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연대'만평 심민섭

純白의 아름다움을 깨지말자

고침 446호 2면 '조계종 수행지침서 발간' 기사 중 불학연구소장은 '호창' 스님이 아니라 '법선' 스님이기에 바로잡습니다. 4면 '일주문'에서 한국불교학회장 권기중 교수는 11월 29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다. 1일 '계룡산 감사 성보의'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한국불교문화학회(회장 사제동)입니다. 10면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시급' 기사에서 이미 열반한 영산재 보유자는 '일운' 스님이 아니라 '일응' 스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본사사령

박원규

의문연직

편집국 취재부 기자 (대구주재)

2003년 11월 10일

나라의 안정을 위한 기도 대법회!

한국대승불교여래종 38주년 기념 총무원장 이·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대승불교여래종에서는 불국토 건설을 위하여 법륜을 굴러온지 3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삼계윤회의 물결에 해메이는 중생을 오로지 건지기 위하여 불법을 전해온 한국대승불교여래종에 지금까지 성원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기도법회와 한국대승불교여래종 38주년 기념식을 봉행하며 총무원장 제 8대 이·취임을 봉행코저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법음의 소리가 삼천대천 세계까지 울려 퍼지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임 총무원장 명안 신일섭 / 신임 총무원장 법정 문순길

◆ 초청인 : 원로위원장 무공, 종회의장 해안, 인왕문도회장 보당, 봉행위원장 무각, 봉행부위원장 묘선

한국대승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신판석

■ **일시**: 불기 2547년 11월 14일(음 10월 21일) **금요일 12시**

■ **장소**: 금강대약사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신리(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 건너편) 금강휴게소 IC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 **문의전화**

- 전통사찰 남한산성 약사사 031)734-3205
- 금강대약사사 여래종 총무원 043)731-2261
- 전임 총무원장 명안 011-483-2261
- 후임 총무원장 법정 011-421-8340

■ **일시**: 불기 2547년 11월 14일(음 10월 21일) **금요일 12시**

■ **장소**: 금강대약사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신리(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 건너편) 금강휴게소 IC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 **문의전화**

- 전통사찰 남한산성 약사사 031)734-3205
- 금강대약사사 여래종 총무원 043)731-2261
- 전임 총무원장 명안 011-483-2261
- 후임 총무원장 법정 011-421-8340